

# 금생에 부처는 못 돼도 '가운데 토막'은 될 수 있다



전등사 보타선원 회주 보광 스님



보광 스님은 ...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보광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나와 4년 동안 중강을 지냈고, 해인사 선원 등에서 16하안거를 성만했다. 해인사 재무 및 규정 국장 소임과 용담선원장을 역임했다. 부산에 전등사를 창건, 도시포교에 매진하며 (재)대각회 이사, 부산서구 사암연합회장, 부산불교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사회봉사 공로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해인사총동문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 다가가서 보니까 오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파리를 살려주려고 찌르려 했는데 휘젓고 제쳤습니다. 나는 공양간에 파리가 많아서 그놈들을 몰살시키고 산에서 파리버섯을 따다가 보리밥에 짓겨져 넣어서 내놓았는데 큰스님께서서는 오줌에 빠진 파리를 건져 주려고 애쓰고 제쳤습니다.

'안심(安心)하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하시지요? 조심(懃心)하라는 말도, 관심(關心)을 가지라는 말도, 용심(用心)을 잘 하라는 말도 더러 들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 심(心)자가 들어가는 말들이 있는데, 불교가 가르치는 핵심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경전을 공부하고 선수행을 하는 공국의 목적이 뭐니까? 마음을 편안케 해 번뇌가 없는 것, 절대고요(寂滅)에 이르러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장황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마음을 편하게(安心)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교의 궁극입니다.

## '안심 조심 관심 용심' 한 순간에 돌아가게 정진

## 오줌통 속 파리 살리려던 고암 스님 '자비 덩어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먹는 사람도 있지." 열 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아버님께 들은 말씀이다.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준비를 했지요. 남정네들이 물지게를 지거나 물통이를 들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아버님께서 물지게를 지셨던 겁니다. 그걸 보신 어머니가 심하게 아버님을 나무라셨는데 아버님께서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마디를 하셨던 겁니다. 옆에서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뉘시 모를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행자시절 내 가슴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조부 되시는 분은 스님이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8세 때 봤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14세 나이로 이렇게 찾아 왔구나." 스님은 매우 반가워하시며 절에 머물며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맨질한 스님의 모습, 정갈한 방, 향 내음 진한 법당 등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가 고향이라 고흥산 보광사로 소풍을 가보긴 했지만 그렇게 집집에서 먹고 자는 일을 처음 겪으며 어리둥절했지요. 어느 날 스님의 방에서 잡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태국 군인들이 보던 잡지였습니다. 그 책에서 사진 하나를 보았는데, 국왕과 어느 스님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의 스님이 국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스님, 국왕보다 스님이 더 높은 분인가요?" "높다마더. 스님이 왕보다야 높지요." "그럼 스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아무나 스님이 될 수 있나요?" "아무려면, 아무나 될 수 있지. 법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단다." 소풍 때나 절에 가보고 지나가는 탁발승을 본 게 전부였던 나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학교 행사 때 교장선생님과 함께 단상에 앉으시는 군수님이

나 경찰서장님만 '높은 사람'인 줄 알았고, 군수나 서장이 되고 싶었던 시골아이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마음이 활짝 쏘아져 까닭모를 설렘이 가슴을 오랫동안 채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성적인 인연이 됐지요. 외삼촌을 따라가서 인사를 드린 바로 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그 스님은 뒷날 조계종 제 3대 4대 6대 종정을 지내신 고암(古庵 1899~1988) 스님이셨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열정적으로 수행하시던 승단의 귀감(龜鑑)이었지요. 해인사에서 공양간 일을 소임 맡아 있을 때였습니까. 그때는 소변을 커다란 나무통에 받았어요. 거름으로 쓰려고 말입니다. 큰스님께서 해우소 곁에 있는 그 소변통에서 똥가를 열심히 건져 내시는 것이었습니

한 것 같지 않았습니. 벌에서에서 행자시절을 보낸 시간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갬두, 채공, 강사스님 사자, 관음전기도 등의 소임을 번갈아 하면서 숨 쉴 틈 없이 살았던 그 1년이 그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고생스러울 때 가장 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큰 힘을 주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저에게 힘을 준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먹는 사람도 있다'는 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나에게 그 고된 생활을 버틸 신심이나 원력이 따로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님의 그 말씀과 은사 스님의 자상하면서 단호한 가르침이 저를 버티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조심은 어떻게 하나? 관심을 잘 하면 됩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신의 발아래 뱀이 있는지 쪼갯조각이 있는지는 오직 자신이 살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쳐들어 왔는지 산만이 발동하는지 스스로 살피고 제어하고 단속할 일입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험뎀거림을 쉬지 못하고 발아래를 살펴지 못하는데서 불행이 닥쳐오는 겁니다. 관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용심도 잘 하게 됩니다. 누구나 선심과 악심이 얽혀있지만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살아갑니다.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승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전들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동,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성,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자동차용 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 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도 교통사고로 수백백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강"을 받았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 밑에 걸어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할스님 30% 할인)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에도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할 공금 가격 별도 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